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먼저 복음화
새계 신교
이웃 사랑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주간 충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질서대로 하라”(고전 14:40)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벧전 1:22). 이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골 2:8). 현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삶을 실천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데 하나되었습니다(골 1:27). 신성한 예배를 비롯한 교회 5대 목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골 12:2).

특별히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맞추어 질서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열심이 자칫 원하지 않는 결과 내지는 고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서의 모든 일이 '질서와 조화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고전 14:40). 특히 우리 교회의 규모상 모든 성도님들의 협력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예배 시작 15분 전에 미리 신성한 예배를 준비하는 영적인 질서에서부터 각 부서 간의 모임이나 집회에서의 질서, 모든 시설을 사용한 후의 질서, 에너지 절약에 관한 질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자 질서에 더욱 자발적인 협조를 필요합니다. 특히 금요 집회와 주일 예배 시에 차량 안내를 불복할 때 혼란을 초래합니다. '나 하나쯤이야'의 생각이 자신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며, 교회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너는...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딤후 3:1).

오늘(7일), 제4차 성찬식 및

어린이·어버리 주일(각종 연합예배 2·3부)

오늘(7일), 주일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 시에 제4차 성찬식이 있습니다.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견고히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2·3부에 있는 각종 연합예배를 통해서 충현의 모든 가족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자제 예배를 드리는 영아·유아·유치부의 어린 영혼을 향한 목사님들의 특별기도가 있습니다.

초·중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지난 주일(4월 30일), 초등학교생과 중학생들을 위한 복음의 공간인 초·중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제1교육관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와 중학생들을 위한 기독교 관련 도서와 영상자료를 기증받고 있으니 모든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사무국)

말씀은 나의 생명!

성찬의 의미
(고전 11:23~33)

함께 모이는 것

성찬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이여, 먹으며 마실 때에 서로 기다리라"(33절). 그러면 함께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라는 뜻은 서로 동의하는 것이요, 하나가 되는 것이요, 특별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하나의 교회로서, 헌신과 신성함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믿는 자들이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받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한 식탁으로 함께 나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것

성찬은 주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주께로부터 이 제시들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성찬은 제자들이나, 선지자들,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찬을 행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혼례가 주께로부터 온 신성한 제시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

성찬은 제안이 아니라 단호한 명령입니다. 성찬은 바울의 권면이 아닙니다. 성찬은 주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아주 진지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되어질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떡과 잔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

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의 권위로 성찬에 초청할 수 있으며, 또는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 6:46).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명령은 준행하지 않습니다. 성찬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기념

성찬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참으셨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죽음없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죽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행해야 함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26절). 성찬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한 번만 행하면 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때에 행해야 할 일입니다.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행하며 주님의 부활과 재림과 완전한 승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야 함

주의 성찬은 참석자들 각자가 자신을 살피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 자신을 살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28, 29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진지하게 자신을 살피어야 합니다. 단지 지금까지 해 왔던 전통적인 예식에 참여하듯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념하기 바랍니다.

김성관 위임목사

CONVERSION OF A CHIEF SINNER

*⁽¹²⁾I thank Christ Jesus our Lord, who has strengthened me, because He considered me faithful, putting me into service...
⁽¹³⁾It is a trustworthy statement, deserving full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among whom I am foremost of all. ⁽¹⁶⁾And yet for this reason I found mercy, in order that in me as the foremost, Jesus Christ might demonstrate His perfect patience, as an example for those who would believe in Him for eternal life. ⁽¹⁷⁾Now to the King eternal, immortal, invisible, the only God, be honor and glory forever and ever. Amen. (1 Timothy 1:12-17)*

Prior to meeting Jesus, Paul described himself as “a blasphemer and a persecutor and a violent aggressor”(v. 13). He used the worst words for himself because Jesus endured his sin for a long, long time before changing him. When Jesus changed Peter from a fisherman into an apostle an amazing thing happened, three thousand souls were converted, “So then, those who had received his word were baptized; and that day there were added about three thousand souls”(Acts. 2:41). Christianity started spreading so fast through the least likely of sources. Considering the mission, the resumes of these candidates did not look good. Paul was a theologian who had killed and imprisoned Christians. Peter was a poor fisherman without any formal theological education. Yet these two men met and accepted Jesus as their Savior, and He transformed them. He changed both of them into powerful and wonderful instruments for God’s kingdom.

As the number of believers increased, the apostles found that they did not have the time needed to help everyone, so they selected deacons. Stephen was one of the first chosen, a man “full of grace and power”, who performed great wonders and signs among God’s children (Acts. 6:8). Certain Jews disagreed with his preaching, but were “unable to cope with the wisdom and the Spirit with which he was speaking”(Acts. 6:10). So, they put forward false witnesses and stirred up enough people to bring him before the Council, a group of about seventy elders and teachers of the Jewish nation. In front of these politically powerful men, Stephen preached God’s word boldly and courageously. He told them, “You men who are stiff-necked and uncircumcised in heart and ears are always resisting the Holy Spirit; you are doing just as your fathers did. Which one of the prophets did your fathers not persecute? They killed those who had previously announced the coming of the Righteous One, whose betrayers and murderers you have now become”(Acts. 7:51&52). He asked them to repent, but instead they gnashed their teeth and “cried out with a loud voice; and covered their ears and rushed at him with one impulse”(Acts. 7:57). They dragged him out of Jerusalem and began stoning him; “and the witnesses laid aside their robes at the feet of a young man named Saul”(Acts. 7:58).

Stephen, whose face and faith were like an angel, died because Paul was a chief sinner. As the people stoned him, he called on the Lord and said, “Lord Jesus, receive my spirit”(Acts. 7:59)! Then he fell on his knees and cried out with a loud voice,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Acts. 7:60)! Paul’s pride drove him far from God, and the devil helped him to become more and more aggressive. After Stephen’s death, he began ravaging the church, “entering house after house, and dragging off men and women, he would put them in prison”(Acts 8:3). He was so infuriated that he even went to the high priest to get legal papers to start persecuting Christians outside of Jerusalem (Acts. 9:1&2).

On Paul’s way to Damascus, where his mission was to find both men and women belonging to Jesus and bind them up to be brought back to Jerusalem for persecution, something miraculous happened. Jesus was waiting for him! He shined a light from heaven around Paul, and he fell to the ground. Jesus asked him,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Acts. 9:4)? At this moment, he knew the Lord of the Old Testament, whom he had attempted so zealously to serve, was Jesus of Nazareth, whom he had so ferociously persecuted through His saints. Jesus’ authority smashed his pride, forcing him on his knees to ask, “Who are you Lord”(Acts. 9:5)? When Jesus told him who He was, can you imagine how Paul felt? He is doing the worst things in the world. He realizes he is a terrible, terrible sinner. His character would never allow him to hurt God’s people, but now he finds out that he was against God and His lovely grace. He became blind and could not touch food or water. His heart cried out to God in sorrow. After three days, Jesus sent His disciple Ananias to heal his blindness and baptize him so that the Holy Spirit could fill him. Jesus told Ananias, “Go, for he is a chosen instrument of Mine, to bear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kings and the sons of Israel; for I will show him how much he must suffer for My name’s sake”(Acts. 9:15&16).

Jesus changed Paul from a chief sinner to a great apostle. He became one of the best preachers of faith. He said, “I thank Christ Jesus our Lord, who has strengthened me, because He considered me faithful, putting me into service... and the grace of our Lord was more than abundant, with the faith and love which are found in Christ Jesus”(vv. 12-14). He dedicated his whole life to the gospel. Even under severe persecution and suffering, he followed Jesus. He said,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Rom. 1:16). No matter how dangerous the situation was to his personal well-being, he took every opportunity to open the gospel to others. He cared more about Jesus than anything else. His life in Christ was a life of faith. He told Timothy, “But you, be sober in all things, endure hardship,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fulfill my ministry. For I am already being poured out as a drink offering, and the time of my departure has come.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in the future there is laid up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to me on that day; and not only to me, but also to all who have loved His appearing”(2 Tim. 4:5-8).

Right after Paul met Jesus, he went the way of faith. He said, “It is a trustworthy statement, deserving full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among whom I am foremost of all. Yet for this reason I found mercy, so that in me as the foremost, Jesus Christ might demonstrate His perfect patience as an example for those who would believe in Him for eternal life”(vv. 15&16). He was so thankful to find Jesus. He knew how guilty he was, but he also knew how much grace was in Jesus Christ. After receiving Jesus, he spent his whole life proclaiming His grace, “Now to the King eternal, immortal, invisible, the only God, be honor and glory forever and ever. Amen.”(v. 17).

My dear friend, if you want a conversion experience you have to realize that you are a sinner. You have to understand how bad you actually are; otherwise, the good news will not be good news. Please drop your pride, open your heart, and let Jesus fill you with His Holy Spirit, so that you can experience and share the love and joy of God’s wonderful grace. 🙏

다을 주일 설교

죄인 죄수의 회개

¹²²“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¹²³“비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 ¹²⁴“그러나 내가 공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월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¹²⁵“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신이니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자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12~17)



김성연 목사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자신을 “궤방자요 궤박자요 포행자”(13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심하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변화되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도로 바꾸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한 것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행 2:41). 기독교는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이 전도자들의 이력은 그리 썩 훌륭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정규적인 신학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가난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은 두 사람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강력하고 놀라운 도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신자들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사도들은 모든 사람을 도울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사들을 선출했습니다. 스데반은 최초로 선출된 집사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행 6:8). 어떤 유대인들은 그의 가르침에 반발했지만, 성경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행 6:10)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사람들을 소동시켜서 스데반을 공회에 세웠습니다. 공회는 대략 칠십 인의 장로들과 유대인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신자들 중에 누구를 궤박자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온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행 7:51,52). 스데반은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듣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행 7:57). 그들은 스데반을 예루살렘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앞에 두니라”(행 7:58).

사람들이 돌로 치자 스데반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행 7:59)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 7:60).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고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자존심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마귀는 그런 그를 부추겨 더욱더 호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 바울은 교회를 완전히 토도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기니라”(행 8:3). 바울은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박멸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했습니다(행 9:1,2).

바울의 회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를 쫓는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그를 둘러싸고 바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질문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궤박하느냐”(행 9:4)? 그 순간 바울은 그토록 열성적으로 섬겼던 구약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이 무자비하게

궤박해왔던 성도들이 믿는 나사렛 예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주여 뉘시오나니까”(행 9:5)?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을 밝히셨을 때 그의 기본이 과연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간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끔찍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가하는 일은 그의 성품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과 그의 남치는 은총에 대적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는 음식은 컵만 찹조차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애송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삼 일 후 예수님은 제자 아니아를 보우시 바울의 눈을 고치고 성령 충만을 위해 세례를 베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행 9:15,16).

죄수에서 사도로

예수님은 바울을 극악한 죄수에서 신실한 사도로 바뀔봉으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 중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12~14절). 그는 전 생애를 통해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극한 궤박과 고통 중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바울은 자신의 신변에 아무리 위험한 일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개와 같이 벌써 내가 복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와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5~8).

믿음의 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비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 그러나 내가 공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월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니라”(15,16절).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된 사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후악한 죄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신이니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자이다 아멘”(17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복음이 됩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자신을 채우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말미암은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며 나누게 될 것입니다.

부도들이 자녀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궁극적인 선생님이시요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비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길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라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가장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공부와 건강 등 뭇바라지해 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구조자들에게로 데려 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평과도 같은 귀한 자녀들을 예수님 이외의 다른 선생에게로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대우받은 후에는 영원한 형벌에 빠질 그 자리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최고의 선생이신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은혜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되는 가정은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영원한 복을 받는 귀한 일에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론에 나오는 아버지는 예수님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 또한 예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부모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 하늘의 신령한

십자가로 하나된 믿음의 가정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비태복음 17:14-18)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 기쁨의 이유를 궁금해 하며 먼저 물어 볼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해 준다면 그것 자체가 능력있는 전도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길 뿐입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믿음의 능력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면 먼저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단순하고 아름다운 심령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이 일을 행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떼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 17:20). 겨자씨는 이 세상에 있는 씨앗들 중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바로 이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펴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온 식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자녀들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은총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부모인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참 구주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김성관 위임목사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실로암 찬양대



이계인(영로, 실로암 찬양대장)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일 하루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라 될 수 없습니다. 평일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는 주 중의 가운데 날로서 다시 한 번 흠어진 마음을 주께 집중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 주일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이 주와 동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내 자존심, 세상을 기웃거렸던 마음을 회개하며 돌아서는 시간이 됩니다.

실로암 찬양대는 수요일 예배(수요일 저녁 7:30)를 섬기는 찬양대로 현재 120명의 찬양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실로암 찬양대는 목사, 사모, 전도사 등 교역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암’ 찬양대의 뜻을 더 깊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에 진흙을 이겨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다시 보게 되었던 사건을 기억하며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심방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영혼을 돌아보아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과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 중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없이 그냥 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역자들을 포함한 모든 대원들이 아무리 바빠도 연습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기 한 시간 전부터 모

여 연습을 하고, 또 예배가 끝난 뒤에도 한 시간 더 연습을 합니다. 되도록 자식을 외워 그 가사가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며 내 삶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정성없이 살다가 주일에만 겨우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예배에 참여하는 직장인들과 젊은이들이 요즈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진정으로 바뀌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은 매시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시간을 사모하게 됩니다. 실로암 찬양대원들은 찬송을 통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묵상하며 예수님과 깊은 영혼의 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더 많은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준비할 일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세루 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순례길이 매일매일 계속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임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창 42:73).

복음의 꽃이 활짝 피기를 기도하며

선교지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일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할 때면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다.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몇 번씩이나 반복하여 손짓까지 해 가며 마음으로 읊부었으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부족한 것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믿고 영접기도까지 드릴 때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

저녁에 팀원들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영혼들을 위한 우리는 애절하다 못해 처절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였다. 이처럼 말과 혀로만 내려 놓았던 내 자신과 내 중심의 것들, 고난,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 놓으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갔을 때 주님은 크게 역사하셨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끝까지 전하지 못한 때도 있었다. 때로는 아기의 발등에, 노인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면서 이들을 붙잡아 여겨 구원하여 주시길 기도하면서 떠나왔다.

이 모든 복음의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는다. 비록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셨음을 믿고 감사한다. 우리가 뿌린 산 복음의 씨앗이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곳에 복음의 꽃이 활짝 피며 그 열매가, 생명의 역사가 가득할 것 믿는다.

김달수(집사, 10교구)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교 가기 전부터 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라고 주신 의미로 받아들였다. 먼저 나부터 준비되지 못했고 선교를 대하는 나의 안일한 자세를 회개했다. 특히 선교 가기 전 날 선교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 속에 새기고 출발하게 되어서 참 감사했다. 선교지에서도 여러 가지 사탄의 도전이 있었다. 내 마음이 선교에 집중하지 못할 때마다 기도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이방 신을 믿는 한 여성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다. 간절에 위암 증세까지 보이는 그녀는 남편에게도 버림받아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라고 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당신의 영육 간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선포하였을 때 처음에 이 여인은 심히 주저하였지만 성경 읽을 것과 기도할 것을 계속 권면하자 진심으로 'OK'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정말 감사했다. 이 여인을 포함해 현지 영혼들을 위해서 한국에서도 계속 기도할 것이다.

또한, 주님은 비를 내리시어 현지인들이 집안에 많이 있게 하시어 수월하게 복음 전도를 하게 하셨다. 비조차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감으로 감사하였다.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지금은 언뜻 기억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의 죄악을 치실 것을 기대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온 지체들을 천국에서 볼 것을 소망한다.

권오인(대북부 13팀)

복음의 도구

모든 팀원이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선 축복한 비와 서늘한 나무 그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역 4개월 되던 날이었습니다. 경전회를 하고 사역지로 나아갔는데 괜히 몸과 마음이 피곤하였습니니다. 질퍽거리는 땅을 밟으며 찾아갔는데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빠졌습니니다. 그러나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아시는 주님께선 곧바로 회개하게 하시고, 삭개오 같은 할아버지 한 분을 보내 주셨습니니다. 곧게 닫힌 문 앞을 지나치려는데 그 할아버지가 뛰어나와 초대해 주셨고 눈이 잘 보이지 않음에도 돌보기를 새 가며 전도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으로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하는 일이 즐겁고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전도의 간절함을 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주의 군사로 나아갔지만 그간 영혼들과의 만난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예수님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합지졸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역지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선 많은 은혜와 회개를 통해 나를 부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모습과 생각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 놓았을 때 비로소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팀을 계획하시고 우릴 그 땅으로 보내기 전에 성령님께서 먼저 그 영혼들 마음 가운데 찾아 가지고 끝까지 주의 일을 무사히 감당케 해 주시니 선교지에서의 삶이 아니라 학교나 가정,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염혜설(대북부 15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1시간 이상 걸려 이동하며 오전에 두 마을, 오후에 두 마을을 다녔습니다. 사역하는 곳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곳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감정에 따라 우물하기도 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 보면 시험에 들어 마음의 평안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제 자신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떠나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다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요 15:5)라는 말씀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축광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성령님은 영의 눈을 허락하시며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영혼을 보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에만 감사하게 하시고 거부하는 영혼에만 안타까움과 담담함, 생각에 빠졌다는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을 때, 그 사랑에 거할 때 성령님은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그 길이 싫어도 성령님의 열심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영혼을 보게 하시며 안타까움을 허락하시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 뼈 속까지 죄악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난 한 가지만 하면 되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무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만 알아 가면 되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1분 1초, 늘 죄악만을 행하는 이 죄인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은주(집사, 직면 4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5월 9일(화) ~ 5월 17일(수)	3교구 1지역	김성호
5월 10일(수) ~ 5월 19일(금)	15교구 7지역	박중태
5월 10일(수) ~ 5월 19일(금)	15교구 5지역	최홍섭
5월 10일(수) ~ 5월 19일(금)	5교구 8지역	박옥현
5월 12일(금) ~ 5월 20일(토)	8교구 7지역	전성호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5월 1일(월) ~ 5월 9일(화)	10교구 4지역	조영철
5월 1일(월) ~ 5월 9일(화)	11교구 3지역	김경수
5월 1일(월) ~ 5월 9일(화)	3교구 6지역	문영규
5월 1일(월) ~ 5월 9일(화)	16교구 2지역	현준봉
5월 2일(화) ~ 5월 10일(수)	1교구 3지역	구원성
5월 2일(화) ~ 5월 10일(수)	초등부(1)	지규성
5월 2일(화) ~ 5월 10일(수)	3교구 8지역	한현석
5월 3일(수) ~ 5월 12일(금)	7교구 2지역	최대환
5월 5일(금) ~ 5월 13일(토)	9교구 2지역	김종성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4월 27일(목) ~ 5월 4일(목)	15교구 4지역	김태식
4월 27일(목) ~ 5월 6일(토)	7교구 1지역	조종민
4월 28일(금) ~ 5월 6일(토)	18교구 3지역	김원호
4월 28일(금) ~ 5월 6일(토)	18교구 5지역	한민교



성경공부시간이 중가요

엄마 : 헤린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를 아니?

헤린 : 네,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요.

엄마 : 누구 죄를?

헤린 :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가지고 하늘로 가셨어요.

엄마 : 다시 살아났니?

헤린 : 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엄마 : 이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헤린 : 음~! 유치부에서 전도사님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엄마, 잠깐!(주일학교 가방에서 유치부 성경공부 교재를 꺼내 온다.) '엄마와 함께 읽는 매일 성경' 읽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선생님과 성경공부 시간에 얼마나 읽었다고 보여 드려야지!(마냥 즐거워한다.)

* '주일학교 선생님과 무슨 성경공부를 했니?' 하면
헤린이는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것처럼 요즘 부쩍 성경 읽라고 출라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좋은가 봅니다.

정명숙(마혜린의 엄마, 유치부)



(복음 전도 편지)

바로 예수님이야!

미르에게

Hi, Hello!

나의 베스트 프렌드 1위인 네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어.
세상에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열심히 만든 사람들이 있어.

바로 하나님이야.

믿기지 않는다고?

그럼, 천국교회에 한 번 와 봐.

단 한 번이라도 괜찮아.

그 한 번은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 한 번 오지 않을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 주셨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교회에 다니지 않을래?

꼭 천국교회로 오지 않아도 괜찮아.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와.

매우 환영해 줄 거야.

하지만 혼자 가기가 좀 위한다면 우리 교회로 와.

우리 집으로 전화해 줘. 번호는 알고있지!

전화해 준다면 우리 5월 21일에 교회에 같이 가자!!



2006. 4. 너의 친구 민정이가

(*민정이는 5월21일에 있을 충동원전도주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소년부 친구입니다)

성경을 쓰고 성경으로 전도해요

유년부에서는 성경필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당연히 성경필사를 시작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재미있고 좋았는데 가만 갈수록 귀찮아졌어요. 그래도 참고 계속해서 성경필사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환경을 다 쓰고 두 권째 쓰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쓰면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성경을 그냥 읽고 까먹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경필사를 한 뒤부터 훨씬 더 많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거기에다가 성경을 쓰면서 글씨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성경에 쓰인대로 전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할아버지께는요.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1편과 23편을 암송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갈 때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아버지는 제가 그럴때마다 크게 웃으시며 들으셨어요. 아직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저는 더욱더 기도하고 성경을 외워서 이야기해 줄거예요. 그리고 저는 얼마 랑 집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해요.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반혜준(유년부)

십자가를 전하는 손전등

저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인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와 저는 제일 친한 친구면서도 매일 싸웁니다. 가끔 부모님께서 언니만 칭찬하실 때면 얼마나 썩이 나는지 언니는 없고 동생만 있었으면 할 때도 많았답니다. 그러다 작년에 언니가 미국 고모 댁으로 간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자주 자주 언니 얼굴이 보고 싶고, 집이 텅빈이 있는 것 같고 뭘 해도 심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언니에게 전화가 왔을 때 얼마나 반갑던지 하마터면 킁킁 울 뻔 했답니다. 생각해 보니 언니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것, 제가 동생인 것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갑자기 소중한 언니를 낳아 주신 아바, 엄마께 감사했고,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두 달 후 언니가 돌아 왔을 때 저는 언니를 꼭 끌어안고 팔짝 뛰었습니다. 언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활짝 웃으셨구요. 사랑하는 가족과 잠시 떨어져 있었는데도 이렇게 그리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리워질까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탄때문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최고고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신 사탄을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고 엄마와 선생님께서도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았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언니와 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빛을 그리워했던 겁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미워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될테니까요. 이제 왜 예수님을 믿이라고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앞으로는 빛의 자녀답게 밝고 명랑하게 생활하겠습니다. 주변에 어둠의 그림자 때문에 괴로워하고 시기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예수님을 전해서 밝게 해주려고 해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해주는 손전등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니와 내가 더 큰 빛,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을 꼭 잡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최수민(초등부)

교회 탐방 유년부 찬양 울동팀

“춤추며 주의 이름을 찬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케이다”(시 149:3).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높이며 온 몸으로 주님을 찬양할 땐 찬양하는 유년부 찬양 울동팀의 작은 몸짓을 보았습니다.

유년부 찬양 울동팀은?

유년부 선생님들 몇 분이 유년부 예배 때 앞에서 찬양에 많은 울동으로 아이들을 인도해왔습니다. 앞에서 울동을 하며 아이들이 보니 아이들이 찬양과 울동을 정말 잘 따라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찬양과 울동으로 주님께 영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찬양 울동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희주 교사)

교회학교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때론 아이들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동과 함께 찬양을 하면 아이들이 더욱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아홉 때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백경희 교사)

지도하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바라는 점은?

찬양 울동팀을 만들고 이제 두 달이 되었어요. 아이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려운 울동도 아홉 나이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모두 익히지요. 그런데 앞에서 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윤희 교사)

서명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모심이 주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시 19:14)라는 시편 가사의 고백처럼 늘 ‘내 고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러그릴 원합니다.’ (김수연 교사)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찬양의 기쁨은?

처음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니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점점 부끄러운 마음보다 찬양의 기쁨이 더 커서 자신있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찬송도 더 잘 외워지고요. 저는 집에서 공부할 때에도 찬양이 생각나서 입으로 흥얼거릴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기뻐요. (김서아)

저는 정말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유년부에서 늘 조용히 있는데 찬양을 하면 기뻐서 일어서서 선생님들을 따라 울동을 했어요. 그런 것을 선생님께서 보시고 앉아서 해 주셨어요. 늘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어요. (김예림)

아빠는 찬양대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찬양도 하고 울동도 하는 찬양 울동팀이 좋아서 찬양 울동팀을 하겠다고 했어요. 남자는 저 혼자지만 저는 온 몸으로 찬양하는 것이 정말 기뻐요. 집에서 연습할 때 찬양에 집중하려고 방에 들어가 혼자 연습을 해요. (이희태)

선생님께서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추천해 주셔서 하게 되었어요. 찬양이 좋아서 제가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요. 보다 보니 제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언니는 가사를 모두 외워버렸어요. 찬양을 통해서 인니들끼리 사이 좋게 지내게 되었어요. (남정진)

어떤 찬양이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 예수님 사랑 나누어’ 라는 찬양을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최유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정말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아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로 인도했어요. 저는 아예 암만 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십자가 전도지를 뿌리셨어요. 또 어떤 언니는 뽀뽀 얼굴을 들었어요. 저는 마음이 정말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다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자리에 앉아서 하트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한소영)

귀여운 모습으로 찬양을 준비하는 유년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위해서 흐뭇한 표정으로 미소지으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아이들의 소중한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크게 기뻐하며 온 맘과 정성을 다해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편지집)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이런 시절, 아니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지야 무리 고민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었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리석은 행동이었다.

“십자가를 자심은 주의 죄가 있으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은 우월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했기에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지를 수 있었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사랑이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다. 이제는 내가 바로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 그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죽인 무지한 사람이 바로 나이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을 알았다.

“피와 값이 없는 죄 없는 이가 없애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은 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조물에 대한 창조자의 사랑으로 이해하게 하였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나의 끔찍한 죄는 아주 더러울, 씻을 수 없는 죄임을 깨달았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아름답게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나의 영원 영원 행해네.” 영원히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죄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은 세상 무엇보다도 비할 수 없는 변치 않는 나의 구원자이자 친구이시다. 예수님께서도 나와 그 보람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심을 믿는다. 정말 감사하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반오소서.’ 아멘.

최희연(집사, 가브리엘 찬양대)

♡ 새 가 목 울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56	정영애	5 장년2부	윤부기(5)	1381	박상희	1 장년1부	최민석(1)
1357	신동주	14 장년2부	함영민(18)	1382	최혜영	1 장년1부	이승인(4)
1358	김윤금	16 장년1부	김정임(6)	1383	김영아	2 장년1부	정민석(1)
1359	성성훈	13 장년1부	오영선(8)	1384	배비도르치	19 외선부	김석원(10)
1360	김성훈	19 장년1부		1385	최종민	5 장년2부	김정자(5)
1361	김하연	19 장년1부	이창원(17)	1386	김진태	9 장년1부	남성일(7)
1362	안병연	5 장년2부	김호일(17)	1387	김희숙	19 외선부	신정숙(8)
1363	오영희	8 장년2부	서영남(8)	1388	사다루민	19 외선부	박성식(4)
1364	정리수	13 장년1부	오영선(8)	1389	박나나	19 외선부	나영애(연(19)
1365	오성찬	13 장년1부	김익태(8)	1390	문누르메르치	19 외선부	나영애(연(19)
1366	임삼미	19 장년2부	박예영(8)	1391	김진영	4 장년2부	최영규(4)
1367	정병원	8 장년2부	정성진(5)	1392	양지민	19 외선부	유재훈(17)
1368	김효숙	1 장년1부	고재훈(8)	1393	김지영	19 장년2부	정홍준(2)
1369	정영희	10 장년2부	이희연(15)	1394	황나미르치	19 외선부	
1370	김리자	8 장년2부	김강미(8)	1395	한커나	19 외선부	
1371	조은선	19 장년2부	최호일(15)	1396	배지은	19 장년2부	이복순(1)
1372	하태훈	19 장년2부	정준진(1)	1397	김정영	17 장년2부	박재현(17)
1373	김용숙	15 장년2부	양정민(1)	1398	노준희	12 소년부	신유경(9)
1374	정영원	19 장년2부	박성식(8)	1399	민은주	7 장년2부	안성진(6)
1375	조 소	19 외선부	이 철(3)	1400	이민재	7 장년2부	윤자옥(8)
1376	가 나	19 외선부	이혜수(13)	1401	최민석	19 장년1부	김복희(11)
1377	김희영	19 장년1부	김지희(9)	1402	조수진	19 장년1부	김복희(11)
1378	미소자	12 장년2부	박노준(5)	1403	이신혜	19 장년1부	
1379	강미자	14 장년2부	최희재(14)	1404	김영도	19 장년1부	
1380	이재민	1 장년1부	오영태(8)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Z05호 새가족 등록카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정기 담화
일시: 10월(수) 2부 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권사회 1,2차회 월례회
일시: 10월(수)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움

별세

1. 김봉순 성도(박병엽 권사의 사모, 10교구 한산구역) / 4월 28일 별세, 29일 장례
2. 김광영 성도(김귀자 권사의 남편, 5교구 일관구역) / 4월 29일 별세, 5월 1일 장례
3. 오석환 성도(오유경 집사의 부친, 6교구 방이구역) / 4월 29일 별세, 5월 1일 장례
4. 지순희 성도(인영숙 성도의 남편, 지순자 집사 - 지영자 성도의 부친, 최환환 집사의 장인, 8교구 구자송장구역) / 4월 29일 별세, 5월 1일 장례
5. 김철순 성도(김경문 성도의 부친, 김영자 집사의 사모, 9교구 청학구역) / 4월 29일 별세, 5월 1일 장례
6. 신현삼 은회장로(심 숙 은회권사의 남편, 신현권 권사 - 신병진 성도의 부친, 박영애 집사의 사모, 10교구 삼신1구역, 3교구 대림1구역) / 4월 29일 별세, 5월 1일 장례
7. 강명복 성도(강영숙 은회권사의 남편, 10교구 양문1구역) / 4월 29일 별세, 5월 1일 장례
8. 임화은 은회권사(이승국 성도의 부친, 6

2006년도 제6차 CMTC 문헌 (교육과정: 2주간 장소: 갈릴리움)		
구 분	5월 7일(오늘)	5월 14일(다음 주일)
제1강(18:10~18:50)	사도행전의 선교	선교 현장의 영적 상황
제2강(19:00~19:40)	2006년 단기선교 정책과 방향	2005년도 선교사례 사업 경험 및 개선 사항

◆교구위원회 헌신예배

일 시: 5월 10일(수) 2부 예배 내
대 상: 모든 교구

◆단기선교 탐방 문헌

일 시: 5월 10일(수) 2부 예배 후
장 소: 베다니홀

◆선교위원회 실무영역 명성 문헌

일 시: 5월 16일(화) 19:30
장 소: 베다니홀

◆안수집사 부부찬양 연습

일 시: 5월 7일(주일)~6월 25일(주일) 15:15~16:20
장 소: 교육관 407호

교회직원 모집

- 1.모집 부문 경배인
- 2.자 격 세례 고인
- 3.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 · 주민등록 등본 ·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 4.서류제출 강남구 역삼동 665-1(우우) 552-8200 (내선 403)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8(월)	9(화)	10(수)	11(목)	12(금)	13(토)	14(주일)
설교자/지도자	김성관/김한기	임현덕/박옥원	최종철/이병두	이정훈/김옥진	김태석/공성재	김성훈/강호숙
						양재웅/신동자

예배담당 안내 (5/10~5/14)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5/10	수요 I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호산나 찬양대)	이창수 김경숙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 (막 14:34-38) 김성관 목사
5/10	수요 II	이 세상 함하고 (설교담 찬양대)	안지원 김은호	오면예들 (삼하 6:6-11) 류병희 목사
5/12	금요일회	유년부 중창단 / 바이올린 정보라 / 합창부야 찬양대 - 오케스트라	장 훈	김성관 목사
5/14	주일 I	예배 전 찬양	최종철 조종환	죄인 괴수의 회개 (딤후 1:12-17) 황건섭 목사
5/14	주일 II	큰 죄에 빠진 나를 회 / 바이올린 장영희(명일 연주자)	최정길 정정길	죄인 괴수의 회개 (딤후 1:12-17) 고광환 목사
5/14	주일 III	십자가 그늘 아래 회 / 합창부야 제1여성중창단(지도: 채은진)	류병희 김은철	죄인 괴수의 회개 (딤후 1:12-17) 김성관 목사
5/14	주일 IV	나 행한 것 회개하 회 / 바이올린 이예스다(임유영 오케스트라와 악장)	이종대 전학태	죄인 괴수의 회개 (딤후 1:12-17) 이정준 목사
5/14	주일 V	민행의 날 주례사 회 / 소프라노 문은희 양도 이보람(명일 합창단 솔리스트)	윤수민 최윤덕	죄인 괴수의 회개 (딤후 1:12-17) 김성관 목사
5/14	주일일양	별채 여성중창단 / 만도린 연주회 / 아벤 찬양대	김익환 전상진	주 안에 거하라 (요 15:1-6) 임현덕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인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목회자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일회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 당

기도원 집회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금요일회	저녁 11:00	금요일회 후 본당 앞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부 예배는 영국, 중국, 일본어 및 수화도,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루마니아어 등입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선교관 1층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청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당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사 랑 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예배마루	오전 9:00(매일) 오후 1:00(오전일)	제2교육관 1층
타 가 부	(화) 오전 8:30~오후 1:00 (금) 저녁 7:00~9:30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 다니 홀
중년인간이집	주간교구	교육관 107호
장성장애인교육	주간교구	충원복지관
국내외국인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성 · 기 · 는 · 본 · 들

■ 위임독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이 병학 이 훈	김정호 김은희 노광현 이 병학 이 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남선우 김준구 최무길 이종호 차진득	이종호 차진득 차진득 차진득	이종호 차진득 차진득 차진득
김광남 이종호 임두원 진용호 진용호	이종호 임두원 진용호 진용호	이종호 임두원 진용호 진용호
이정우 김진원 함수진 김인성 김기환	이정우 김진원 함수진 김인성 김기환	이정우 김진원 함수진 김인성 김기환
한윤철 이형수 안두원 황이만 김구형	한윤철 이형수 안두원 황이만 김구형	한윤철 이형수 안두원 황이만 김구형
최윤철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최윤철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최윤철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박용규 권민욱 조종환 배순식 김달남	박용규 권민욱 조종환 배순식 김달남	박용규 권민욱 조종환 배순식 김달남
이성호 최희운 노영환 박철규	이성호 최희운 노영환 박철규	이성호 최희운 노영환 박철규
신상수 고재호 강철형 김영은 이광욱	신상수 고재호 강철형 김영은 이광욱	신상수 고재호 강철형 김영은 이광욱
정철환 김승준 함철주 윤석민 정성현	정철환 김승준 함철주 윤석민 정성현	정철환 김승준 함철주 윤석민 정성현
안석현 김진근 김창국 김준선 임창식	안석현 김진근 김창국 김준선 임창식	안석현 김진근 김창국 김준선 임창식
김은철 전학태 김진근 전학태 김철근	김은철 전학태 김진근 전학태 김철근	김은철 전학태 김진근 전학태 김철근
장승규 전은배 석영식 구재현 송두섭	장승규 전은배 석영식 구재현 송두섭	장승규 전은배 석영식 구재현 송두섭
최차용 신선길 유상태 박상준 김규자	최차용 신선길 유상태 박상준 김규자	최차용 신선길 유상태 박상준 김규자
신상철 김은희	신상철 김은희	신상철 김은희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 전담감독 강기주

전담감독 강기주	전담감독 강기주	전담감독 강기주
전담감독 강기주	전담감독 강기주	전담감독 강기주
전담감독 강기주	전담감독 강기주	전담감독 강기주

■ 전담연주자 강영희

전담연주자 강영희

교회 오시는 길

